

미세먼지 해결 동네숲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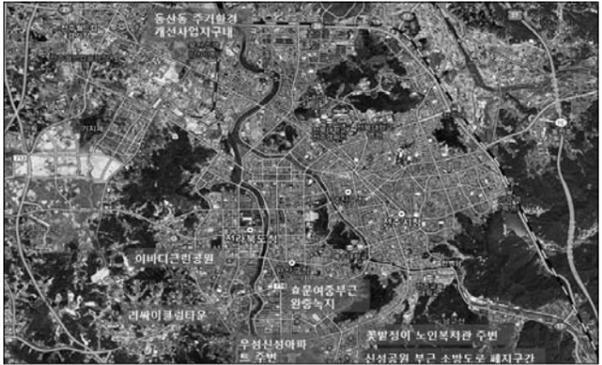
전주시, 올 10억원 투입 공한지 등 7곳 대상 추진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동네숲을 조성한다.

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국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해 도심공한지와 교통섬, 완충녹지 등 7개소에 수목을 식재하

고 습터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을 위한 녹색 습터로 제공하는 도심동네숲 습터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전주시 미세먼지 격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으로 행



전주시가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도심 공한지 등 7개소에 도심동네숲 습터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도시숲 조성 위치도.

정과 시민, 기업·민간단체가 모두 함께 단 한평의 땅이라도 있다면 나무를 심어 도시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과 동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우성신성아파트 주변,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주변, 신성공원부근 소방도로 폐도구간, 효문여중부근 완충녹지, 이바디 공원 등이다.

시는 해당 녹지조성 부지가 주변 지형보다 지대가 낮으니까 토질이 불량하고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다.

시는 동네숲·도심습터 조성이 완료되면 녹색공간 확충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여름철 도심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 동네숲과 습터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심 내 녹색 휴식공간을 항상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진북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대립각'

개발 반대 단독주택 주민 '주거기반시설 잘 갖춰져 있어 재개발 대상 될 수 없어' 개발 추진 조합 측 '사업성 감소로 시공사 사업포기 우려 따른 사업 무산 가능성'

전주시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사업이 개발에 반대하는 단독주택 주민들과 개발을 추진하려는 조합측, 양측의 민원으로 대치되고 있다.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위 승인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이 된 바 있으나 현재 모든 사업 진행이 조합 측과 주택단지 측의 입장 차이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곳 단독주택 주민들은 20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조합 총회 이후 임원선거 등 모든 안건이 불법으로 진행되어 무효 처리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에 역시 대의원 선임 및 시공사 선정 등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은 1억5천만원 가량의 자기부담금을 낸 형편이 못되고 또한, 각자 자기집을 리모델링해 잘 살고 있는데 노후주택이라고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으며 만약 재개발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가 훨씬 못미치는 보상금으로 쫓겨날 형편에 놓여있다"고 성토했다.

양측의 민원 요지를 정리해 보면, 단독주택 측은 "현재 재개발 추진 자체가 본인들에게는 무리이며 시공사 선정은 2014년 조합 총회 이후 임원선거 등 모든 안건이 불법으로 진행되어 무효 처리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에 역시 대의원 선임 및 시공사 선정 등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은 1억5천만원 가량의 자기부담금을 낸 형편이 못되고 또한, 각자 자기집을 리모델링해 잘 살고 있는데 노후주택이라고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으며 만약 재개발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가 훨씬 못미치는 보상금으로 쫓겨날 형편에 놓여있다"고 성토했다.

양측의 민원 요지를 정리해 보면, 단독주택 측은 "현재 재개발 추진 자체가 본인들에게는 무리이며 시공사 선정은 2014년 조합 총회 이후 임원선거 등 모든 안건이 불법으로 진행되어 무효 처리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에 역시 대의원 선임 및 시공사 선정 등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했으나 정족수

/송효철 기자

덕진구,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지원 간담회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지난 20일 덕진구청 회의실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지역아동센터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업 안내, 임무,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외국문화전도사 지원사업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외국어 습득과 외국어의 다양한 문화 이해를 통해 글로벌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4개월간 관내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배치되어 하루 4시간 주 5회에 걸쳐 자국의 언어·문화를 가르치는 외국문화전도사로 활동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청년들의 금전관리·재무설계 돕는다

전주시, 맞춤형 금융코칭 제공 '내 통장 사용설명서' 28일부터 5월 초까지 운영

전주시가 맞춤형 청년금융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건전한 금전관리와 재무설계를 돕는다.

시는 청년들의 과도한 소비와 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청년금융코칭 프로그램인 '내 통장 사용설명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청년금융코칭 프로그램은 오는 28일 오후 7시 첫 시간을 시작으로 2주마다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총 6회에 걸쳐 운영된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진출해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고 돈 관리에 무감각한 사회초년생에게 맞춤형 조언을 받기 단계 △결혼준비 단계 △내 집 마련 단계 등 생애단계별 재무설계를 제공, 인생의 흐름에 따른 올바른 금융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청년금융코칭에는 금융전문가인 김진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실장이 참여한 청년들에게 10주간 재무검사를 통해 본인의 객관적 재무상태를 알아보고 재무 상태에 따른 재무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0주간의 가계부 작성을 통한 지출계획에 따른 돈 관리 훈련 △2019년에 바뀌는 금융제도 및 금융지식 교육 등도 실시, 청년이 스스로 본인의 금융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청년코칭 프로그램은 본인의 소비습관을 점검하고 싶거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은 전주청년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전화(063-281-5023)로 참여를 신청하거나, 네이버폼(naver.me/504Uhw7w)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노후 보안등 조도개선

전주시 완산구는 관내 방범취약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조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완산구는 노송동, 서신동, 삼천동, 효자동 일원 노후 보안등으로 인한 방범취약지역 및 조명시설 미설치구간에 LED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범지역을 사전에 차단, 시민들의 보행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야간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송효철 기자

'독서실 책상 밑 몰카'

경찰, 여성 신체 훑쳐본 20대 구속영장 신청키로

여성 전용 독서실에서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부착해 여성 신체를 훑쳐 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전주 시내 한 독서실에서 B양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몰래 부착하고 신체 일부를 몰래 훑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B양 책상 밑에 숨긴 뒤 또 다른 휴대전화로 영상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휴대전화가 떨어지면 서 들켰다.

B양은 당시 떨어진 휴대전화를 분실물로 보고 총무인 A씨에게 전달했으나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이야기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고 복원·분석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단 하루만 그랬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봤을 뿐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지역치안 확립 다짐

전북청, 중점추진업무 설명회

전북경찰이 도내에서 이뤄지는 행사 논의와 지역치안 확립을 다짐하는 '중점추진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20일 치안정책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도내에서 치러지는 전국소년체전과 동시 조합장 선거 등을 치안현안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로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치안 확립을 다짐한다는 취지다.

또한, 치안의 수요자인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전북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원위적·관료적 업무자세 혁파', '협력과 도움, 희망을 주는 경찰활동' 등을 기치로 도민민족을 위한 치안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철 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현장과 과리가 없도록 끊임없이 소통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한 해가 되도록 전북경찰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공무원 채용·개입 정황'

김제시의회 의원 입건

김제시의회 의원이 공무원 채용과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전북 김제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B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김제시에 근무하는 한 계약직 공무원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A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현직 군수 유언비어 유포

전 임실군수 예비후보 징행유예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심민 임실군수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임실군수 예비후보자 A(64)에게 징역 6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임실군 오수시장에서 특정군수 후보를 위한 지지연설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할 심 군수가 여비를 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식후보 등록을 앞두고 "B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뒤 불출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민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부서 칸막이 허물고 업무효율 극대화

완산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 부서간 협업 처리과정 개선

전주시 완산구는 관례적인 중복업무에 의한 시민불편을 해소 하고자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 동안 식품영업인·허가 부서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방식을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처리기간을 단축,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 우·오수분리가 완료된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자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자(건축주 또는 건설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택지개발로 오수시설이 완료된 곳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완납한 서부신시가 지, 화산택지, 서신택지, 서곡, 효자

4·5지구, 평화3택지 등은 면제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식품영업 인·허가시 동일위치, 동일면적, 동일용도 대상(건물주나 세입자들의 변경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2018년 기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식품영업신고건중 면제지역이 53%(624건중 330건), 면제대상이 26%(624건중 162건)로 79%가 면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완산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완납지역인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한해서 건축물대장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지역'을 표기하기로 했다.

이에 식품영업 인허가 신청시 인·허가 부서에서는 면제지역과 면제대상을 확인 후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최라기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완산구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불필요한 부서간 협업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구정활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와 미세먼지구거전략프로젝트사업단은 20일부터 한국전문문화전당 교육실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을 개최했다.

'나와 이웃의 건강 지켜요' 전주시, 미세먼지구수꾼 양성

전주시와 미세먼지구거전략프로젝트사업단(단장 배귀남)은 20일부터 한국전문문화전당 교육실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을 개최했다.

'미세먼지, 꼭 알아야할 10가지 상식'을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최근 일상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세먼지의 이해와 대응요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술 취해 병원에서 망치 휘두른 50대 검거

술에 취한 50대가 병원에서 망치를 휘두르고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에서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모씨(51)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정읍시 한 병원 기계실에 들어가 망치와 파이프로 문을 부수고 당직 근무 중인 직원 B모씨(53)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성과 건강에 대한 영향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법 등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총 10개 강의로 구성됐다.

시는 파수꾼 양성교육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참가자 신청순 모집을 시작하자 이를 만어 조기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